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다

[8] 사회적 가치를 먹고 사는 시니어가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동력이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2025 시리즈기획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다

- [1] 풀뿌리 세계시민은 누구인가?
- [2] '에코 투어리즘'이다
- [3] 선진국은 사회혁신을 이룬 농업국이다
- [4] 가벼운 만남에서 공동체가 시작된다
- [5] 마을공동체의 미래는 돌봄 민주주의다 1
- [6] 마을공동체의 미래는 돌봄 민주주의다 2
- [7] 지역 애착과 관계적 돌봄이 청년을 지역으로 부른다
- [8] 사회적 가치를 먹고 사는 시니어가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동력이다**
- [9] 마을교육 공동체가 거버넌스의 리빙랩이다
- [10] 풀뿌리주민에서 세계시민으로: 한국과 동아시아가 마주한 과제

사회적 가치를 먹고 사는 시니어 일자리

한국은 인구절벽 아래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를 마주하고 있다. 인구감소, 가족해체, 지역소멸을 걱정할 때 많은 정책 전문가는 나이 먹은 중장년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최고의 은퇴선물은 일자리임을 강조한다. 급격한 노화를 방지하는 데 새 일자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더불어 경제적 이익까지 얻는다면 건강과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는 비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중장년 시니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모두 건강과 의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두 가지 목표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사회적 가치, 삶의 질, 능동적 참여,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있다.

중장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한다. 은퇴 이후 시니어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모든 시니어에게 시혜적 차원에서 일자리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여유롭게 노년을 즐기고 싶어 하는 시니어가 있는 반면에, 생계형 일자리가 꼭 필요한 시니어도 있다. 시니어로서 삶이 '나답게 살 수 있는 존엄'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니어를 단순히 수동적 수혜자로 바라보고 연령, 젠더, 가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시니어가 추구하는 삶의 존엄, 건강, 의미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한다. 시

니어는 풀뿌리 지역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즉, 지역공동체 안에서 나답게 살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시니어는 지역에서 발현되는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갖고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하는 가운데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가? 현재 중장년에 이른 시니어는 베이비붐 세대로서 전통적으로 가족주의, 공동체주의가 강하게 작동되었던 시대를 살았다. 그러나 이들은 집단주의적 사고가 급격히 해체되는 가운데 개인 중심의 승자 독식주의가 늘어나면서 극단적 자기중심의 개인주의 사회로의 변화에 마주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 개인은 점차 고립되면서 외로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마을, 협동, 연대, 돌봄, 신뢰, 공동체와 같은 사회적 가치가 약해지는 것을 보고 있다. 시니어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향수가 강하다. 시니어 일자리가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그것을 조금씩 맛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돌진적 근대화 이후 시가 득세하는 정보지배체제 아래에서 중장년은 갈 길을 잃고 있다. 시니어 일자리가 시민성을 갖춘 시민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중장년을 다시 풀뿌리 지역으로 눈을 돌려 이웃 주민을 경쟁자 혹은 적대자가 아닌 협동의 주체요 돌봄의 대상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앞장서 실천하는 두 분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셋강지기 김명숙 님이다. 그녀는 사회적 주변인으로 갑자기 내몰린 시니어가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 환경 회복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능동적 '생태 시민'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시니어로 사는 삶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먹고 사는 것이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동력이

되며, 그의 삶의 방식이 풀뿌리 세계시민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다음으로 원주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의 실무국장을 맡은 김선기 님이다. 그는 빈곤 노인의 끊어진 관계성을 복원하고 나답게 살 수 있는 금융 돌봄을 통해 희망의 빛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노년의 삶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용 불량자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의 인생은 미래와 소망이 끊긴 삶이기도 하다. 현재 기존 제도 안에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길은 희박하다. 수급 대상 기준에서 혹은 벗어날까 봐 두려워하며 그저 최소한의 복지과 시혜에 의존하는 그들에게 노년의 삶은 참으로 우울하고 낙심에 빠져있다. 이런 문제를 주목하고 비록 가난한 시니어들도 작은 지역공동체 안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강지기 김명숙 님과 함께 한 공석기 필자

비록 가난해도 노인들이 금융 돌봄에 참여함으로써 협동과 연대라는 사회적 가치를 조금씩 느끼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김선기 국장은 지역 금융 돌봄 사업을 통해 빈곤한 시니어들이 대안적 삶으로 견인하는 풀뿌리 세계시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록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와 이를 먹고 사는 시니어들의 고군분투가 바로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물론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협치가 필수적이다. 일본 군마현 다테바야시^{鶴林}의 시니어 지역 봉사 지원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시니어 일자리에 대해 보다 성찰적 자세로 시니어가 원하는 것, 자발적이고도 능동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및 실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들은 중장년에 들어선 외롭고 불안한 시니어 개인은 풀뿌리 시니어 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스스로 존엄을 재발견하고 지역 사회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먹고 나누는 삶을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시니어는 이제 돌봄의 주체로서 주민과 지역 생태계 돌봄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애착과 공동체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니어가 단순한 돌봄 수혜자를 넘어서 돌봄의 주체로 바로 서는 과정도 주목된다. 원주 봉산동 지역의 금융 돌봄처럼 작은 참여가 중요하다.

이런 사례에 대한 성찰을 통해 향후 연령, 성별, 계층,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니어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니어는 사회적 가치를 발굴하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스스로 존엄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이후 지역으로 깊이 들어갈 때 다양한 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돌봄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비전과 목표를 전제하지 않은 시니어 일자리 사업이 지속될 때 노인은 지역에서 고립되고 주변화될 위험이 높다.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니어 일자리를 고민할 때 우리는 먼저 인구 사회학적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생애주기와 생애 경력이 연계된 진로 설계를 위해서는 '창의적 인구감소'^{*creative de-population} 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직면한 인구감소는 이미 전지구적 현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사하라 이남 지역은 아직도 인구 성장이 일어나는 예외적 지역도 있다. 그러나 인구 규모가 급격한 속도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인구소멸을 극복하겠다는 당위적 주장은 이러한 전지구적 변화를 간과한 자세이다. 대신에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야심보다는 어떻게 인구감소 속도를 완만하게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창의적 인구감소 전략 위에서 시니어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를 결합하는 시니어 교육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은퇴 이후 시니어는 어떤 노년의 삶을 기대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 보루였던 가족도 이제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가로 해체 및 파편화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수도권에서는 이미 34%를 넘어서고 있다. 개인은 타자를 함께 생각하는 이타적 개인주의는 커녕 자신도 챙길 수 없는



원주시 도시재생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의 모습

불안정한 자기 돌봄 세대가 되었다. 이런 개인에게 공공선을 위한 협동과 연대에 나설 것을 강요하는 시니어 교육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당위적 교육은 오히려 시니어를 불만과 불편한 마음으로 비뚤어진 끈대로 전락시킨다.

시니어에게 일자리는 왜 중요한가? 중장년은 왜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설득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우리 사회 중장년에게 일^{work}의 의미는 무엇이며, 왜 시니어가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결국 소통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이제 197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가 50세 이상의 중장년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세대는 돈과 경력보다는 ‘한 번 뿐인 인생’이라는 담론을 중시하고 다양한 욕구와 가치 경쟁 속에서 스스로 원하는 일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해 온 세대이다. 일과 생활 양립, 저녁이 있는 삶,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 개인주의로 강하게 무장한 시니어에게 지역, 사회, 국가로 다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시니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녹록지 않은 도전이다.

단순한 일자리 정보 제공과 상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협동, 연대, 돌봄, 신뢰, 공공선 등의 사회적 가치는 여전히 추상적 개념에 머물러 그들을 일자리로 유인하지 못한다. 또한 노인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니어 중에 얼마나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 시니어는 어쩔 수 없이 불안정한 일자리^{precarious work}로 나가고 더 큰 위험에 마주하고 삶의 질은 떨어지고 돌봄의 관계망에서 더욱 멀어지게 된다.

이처럼 시니어 일자리가 제2막 인생을 향한 매력적인 지렛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들을 어떻게 풀뿌리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일자리로 유턴하게 할 수 있을까? 안정적 지렛대가 바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일자리 확대와 참여이다. 승자독식의 경쟁 같은 직장생활을 버티어 내면서 마음 깊숙이 숨겨 온 트라우마를 새롭게 덮어쓸 수 있는 장소와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장소와 만남으로의 첫걸음을 내딛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더욱 ‘가벼운 공동체^{light community} 전략이 소중한 것이다. 지역에 들어오고 나가는 가운데 누구든지 환영하고 환송하는 관계 속에서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창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 더 나아가 협동과 연대의 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적 실험은 시니어 일자리가 지향해야 할 바이다.

이러한 실험과 도전의 시간을 통해 시니어는 낯설지만 보물 같은 관계를 회복하고 그동안 간과해 온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이제 시니어는 그의 열정과 관심을 쏟아부을 수 있는 새로운 장소와 관계를 구축하면서 주체적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에 생동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김명숙 셋강지기의 삶과, 금융 돌봄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자 애쓰는 풀뿌리 세계 시민 김선기 국장을 통해 만나보자.

빈둥지 증후군 넘어 생태시민으로 성장한

시니어 김명숙 셋강지기

서울 여의도 셋강생태공원에서 ‘셋강지기’로 활동 중인 김명숙 씨는 누구보다 생태와 지역공동체에 애정을 가진 시민이다.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먹고 사는 시니어로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가?

그녀는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중장년이라는 생애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그녀만의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면서 ‘셋강’에서 두 번째 인생을 열게 되었다. 지금은 지역의 돌봄과 생태에 관한 진심 어린 생태 보전과 관련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긴 해외 생활, 가족 돌봄,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 얻은 삶의 통찰은 셋강이

라는 공간에서 더욱 빛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셋강에서 만난 그녀는 땀을 흘리면서도 40명에 이르는 회원들을 위해 냉면을 준비할 정도로 섬김과 열정이 젊은 활동가 못지않게 대단했다. 단순한 자원봉사활동에서 조금은 의미가 있는 시니어 일자리에 참여하다가 셋강을 만났다. 1년 내내 셋강의 생태계가 변하는 것에 맞춘 다양한 생태 보전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는 중에 소위 '생태적 사회화'^{*ecological socialization}를 경험하고 생태보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자기 삶을 집중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이제 셋강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과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생태 시민으로 성장했다.

최근 '노인이 되어서야 협동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교육'을 한다는 걸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든다고 물어보았다. 김명숙 씨는 자신도 4년 전쯤 양천구 디지털 센터에서 노인 디지털 교육 보조강사로 활동했는데 어르신들이 '나만, 나만' 하는 모습에 실망한 경험이 있다고 공감했다.

우리 사회 대다수 시니어는 공동체보다는 이기적 개인주의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온 협동의 기회는 사라진 지 오래다. 특히 성장중심의 돌진적 근대화를 목격하면서 살아온 중장년은 협동을 익힐 기회보다 경쟁에서 이기고 자기만의 '노오~력'으로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세대다. 그들이 은퇴라는 생애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은퇴 후에 삶의 여유를 가지면서 동시에 평소에 하지 않던 협동과 돌봄의 현장으로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 갑자기 배운다고 그게 몸에 배는 건 아니다. 신앙을 실천하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돌봄 봉사를 하는 것 모두 평소 마음가짐과 노력이 중요하다. 물론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시니어 교육이 참여와 연결되어 사회적 가치를 발굴하고 맛보고 이를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김명숙 씨 자신도 이기적 개인주의자요 가족주의자였음을 고백한다. "저는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보통 주부처럼 가족만 돌보고 나에 관한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셋강에서 나를 보게 됐죠." 전업주부로, 아내로, 어머니로, 사모로 살아오던 그녀는 지금 여의도 셋강생태공원에서 시민해설가, 생태교육 지원가, 일상속 '셋강지기'로 살아가고 있다. 그녀의 삶은 '은퇴 후 제2 인생'이라는 상투적인 말로는 담기 어렵다. 그것은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자기 발견과 실천, 사회적 가치 발견, 지역과 생태와의 깊은 관계 맺기의 여정이었다.

빈둥지 증후군에서 벗어나고자 지역으로 나왔다.

사실 김명숙 씨는 인도와 필리핀에서 총 12년을 지낸 해외 경험이 풍성한 여성이다. 두 자녀의 학업과 생활을 위해 가족과 함께 외국을 전전하며, 동시에 현지에서 굿네이버스나 굿피플 같은 국제 NGO의 자원봉사에도 참여했다. "다문화 현장에 몸을 담은 게 처음이 아니에요. 필리핀에서 이미 그런 걸 경험했죠."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편도 퇴직하면서 그녀는 이전과 전혀 다른 '혼자의 시간'과 마주하게 됐다. 흔히 말하는 '빈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이었다. 자녀 둘이 결혼하여 독립하였기에 전업주부로서의 분주함이 사라지고 갑자기 상실감·외로움·허전함



셋강지기 김명숙 님

이 그녀를 엄습하였다.

한동안 힘들게 집에만 있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 근처 복지관 문을 두드렸다. 그녀가 처음 시작한 자원봉사는 도시락 배달이었다. 그때가 그녀가 시니어를 맞이한 제2 인생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한 시점이다. 그 도시락 배달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역과의 첫 만남, 타인을 향한 실질적 행위, 그리고 그녀 스스로를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였다.

시니어는 사회적 가치를 먹고 사는 사람으로

다시 서야 한다.

그녀의 활동은 단순한 봉사에서 멈추지 않았다. 지역 복지관에서 미술 심리 교육을 듣고, 디지털 보조강사로 일하며, 다문화 청년들과 생태공원을 걷기도 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골다공증 체크 도구를 활용해 봉사했고, 이주민 밀집 지역에서 건강 교육도 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진짜 삶의 전환은 '공동체'라는 키워드였다. "디지털 교육 보조강사로 가봤더니, 어르신들이 다 '나만, 나만' 하더라고요. 공동체라는 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미약하다는 걸 알았죠."

은퇴 이후 노인 대상의 공동체 교육이 요즘 많아지고 있지만 그녀는 그것이 '너무 늦은 교육'이라고 느낀다. 사실 교육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돌봄 참여 장벽을 넘기 위해 이러한 경험이 중요하다. 갑자기 배운다고 참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시니어를 '사회서비스 소비자'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주체'로 올바르게 서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스스로 그 가능성의 실험에 나서려는 중이다.

사회적가치를 맛보게 된 것은 두 번째 인생 터전이 된 셋강을 만난 것이다.

2022년, 그녀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보람일자리 사

업'을 통해 여의도 셋강생태공원에 처음 발을 들였다. 그곳은 그녀에게 단지 '공공근로 일자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 기회이자 공간이었다. 그녀는 "수달 강의도 하고, 생태교육도 돕고, 나무 이름도 배우면서 어느새 제 손길이 닿지 않은 셋강 구간이 없게 됐죠"라며 자긍심을 보인다.

하지만 2024년부터 서울시와 한강사회적협동조합 간의 갈등으로, 한강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람일자리 면접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심지어 면접에서 조합원 가입 여부를 공개하라는 식의 압박도 있었다. "정말 속상했어요. 내가 열정을 쏟았던 곳인데...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라면서 시니어 일자리 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셋강을 떠나지 않았다. 자발적 참여로 강사 활동을 이어갔고, 수달 프로그램과 생태교육을 이어갔다. 셋강은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가족들도 이제는 '엄마가 셋강을 알게 되면서 사람이 더 밝아 졌다'고 말할 정도다.

셋강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학교가 되었다.

김명숙 셋강지기에게 셋강은 단순한 일터도, 취미도 아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이며, 자기실현의 공간이며,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훈련하는 살아 있는 교실이다. 그녀는 셋강과 함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다. 여기서 자연과 사람, 그리고 자신을 함께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녀는 오늘도 월, 화, 수, 목, 금, 토는 셋강에 나가고, 주일엔 교회 예배에 참석하니 일주일이 항상 분주하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나예요"라고 밝게 답을 한다. 사회적 가치를 먹고 사는 그녀는 분명 풀뿌리 세계시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셋강지기 김명숙을 풀뿌리 세계시민으로 자

연스럽게 성장시키고 있는 놀이터와 같은 학교, '셋강시민위원회'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또 다른 풀뿌리 세계시민 셋강지기들을 상상해 보자.

시민이 만든 생태문화 공동체, 셋강시민위원회의 도전

서울 여의도 셋강생태공원은 빌딩 숲 사이에서 마지막 남은 습지다. 1990년대 후반 조성된 이곳은 '도심 속 최초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공원 관리와 운영의 방향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봄에도 서울시의 위탁 운영 주체 선정 과정에서 불투명한 절차가 논란이 되었고, 시민들의 항의와 시위가 이어졌다. 바로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 지키자'라는 자발성에 기초해 시민이 만든 새로운 조직, 셋강시민위원회가 2025년 6월 7일 공식 출범했다.

'생태와 문화를 매개로 공동체를 세운다'는 취지 아래, 위원회는 기존의 위탁 운영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 주도의 생태 보전 활동 단체이며 출범 3개월도 안되었지만 2025년 8월 현재 3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시니어 일자리에서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협동조합 회원으로 참여한 김명숙 씨가 셋강시민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셋강위원회는 단순히 환경운동 단체가 아니다. 생태 보전, 강 문화 프로그램, 교육, 행정까지 포괄하는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위원회는 네 개의 팀으로 운영된다. 보전팀은 생태 모니터링과 수달 서식지 보호, 정화 활동을 맡으며 '강을 지키는 손'의 역할을 한다.

김명숙 셋강지기는 즐거움 팀장으로서 산책 모임, 강변 축제, 체험 활동을 조직해 공원을 단순한 녹지가 아닌 시민 생활문화의 중심지로 만드는데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배움팀은 생태교육과 전시, 강좌를 통해 셋강을 하나의 '시민학교'로 전환시키고 있다. 보호팀은 행정과 소통, 사회적 연대를 담당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와 연결하는 창구가 된다.

셋강시민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 방식이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관람객과 활동가의 경계가 없다. 강변 쓰레기를 줍는 봉사자, 여름 생태교육에 참여한 부모와 아이, 강 문화 축제에 함께한 주민 모두가 자연스럽게 '셋강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이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이며 가벼운 공동체적 실험이다. "예전엔 그냥 산책로였는데, 이제는 내가 돌보는 강이라는 느낌이 들어요"라고 말한 자원봉사자는 "여기서 하는 작은 활동 하나하나가 우리 동네와 지구를 지키는 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니 자부심이 생깁니다"라고 했다.



셋강시민위원회 활동 모습. 사진=조은미 제공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서울시의 행정은 시민위원회를 공식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한강의 자본 중심 개발을 막는 눈엣가시로 본다. 그나마 샛강이 도시화된 여의도를 살렸다면, 개발중심의 서울시 행정이 샛강을 다시 파괴하고 있다. 샛강시민위원회는 물러서지 않는다. 생태계 보전과 문화 활동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며 도심 속 공유지를 어떻게 시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 있다.

필자들은 샛강시민위원회를 두고 '가벼운 공동체'를 구축하는 유의미한 과정으로 주목하고 있다. 느슨하지만 자발적이고, 특정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연대가 형성된다는 점에서다. 이는 단순한 공원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이 도시의 자원을 직접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즉 '공유화^{commoning}'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샛강시민위원회 활동은 이제 시작이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강을 돌보고, 즐기고, 배우며, 동시에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확인하고 있다. '강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험은 여전히 갈등과 제약 속에서도 도심 속에서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

샛강시민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명숙 샛강지기 사례는 시니어 일자리에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시민단체 참여로의 확장 과정이 단순한 환경운동을 넘어 시민이 주도하는 도심 생태 거버넌스의 중요

성을 깨닫고 사회적 가치를 체득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이러한 사례가 다른 지역의 생태공원 가꾸는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발굴되기를 기대한다.

요컨대 김명숙 샛강지기 사례는 단지 한 명의 전업주부가 활동가로 전환한 사례가 아니다. 그것은 나이듦^{aging}에 대한 적극적 재정의이자, 시니어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먹고 사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발견하고 그 활동 속에서 자기 존엄과 지역 애착을 회복하는 주체적 과정이다.

그녀는 샛강을 통해 공동체와 자연,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다시 살아가는 생태 시민으로 귀환한 것이다. 시니어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의 만남이라는 좋은 사례이다. 그녀는 풀뿌리 세계시민으로 지금도 성장하는 중이다.

시니어 금융 돌봄으로 지역공동체 가꾸는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김선기 사무국장

지난 8월 초 필자들은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을 찾았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의 마을이기도 하다. 거의 10년 만에 김선기 국장을 다시 찾았다. 그 이유는 그가 오랫동안 원주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을 헌신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최근에 통합 돌봄과 연결된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샛강시민위원회 활동 모습. 사진=조은미 제공

현재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그는 금융이 배제된 빈곤 중장년에게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길을 교육하며 협동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은 '사람은 가난해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하면서 2004년 노숙인 금융협동조합에서 출발하였다.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 실험은 '배제된 이들을 위한 금융'과 '사람 중심의 통합 돌봄'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돌봄은 복지사업이 아니라 관계성을 다시 이루고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소외된 사람이 한 지역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술을 체득하는 과정'이라는 공통의 주장을 나누면서 김선기 국장이야말로 가벼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풀뿌리 세계시민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김 국장은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의 전신인 2004년 갈거리사랑촌이라는 사회복지 시설 운영부터 참여하였다. 당시 사랑촌 안에는 노숙인, 장애인, 주민등록 말소자 등이 거주했는데 그들은 은행 계좌조차 만들 수 없는 상태였다. 이들은 금융 활동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기에 자기 삶을 어떻게 운영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생각조차 못 하였다. 당시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통장이 없어 저축도 못 하고

병원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중장년이 이 지역에 많았다.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금융 인프라로부터 배제된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를 주목하면서 2016년 설립된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은 '금융 돌봄'이라는 개념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협동조합 출자금 제도를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도 안심하고 저축할 수 있게 하고 목적성 적금과 소액 대출,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했다.

현재 갈거리협동조합의 조합원 421명 중 344명이 수급자이다. 그만큼 금융 돌봄이 절실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일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이 협동조합이 유일한 선택지인 셈이다. 무엇보다 협동조합 출자금이 복지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노인들이 점점 더 협동조합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물론 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돌봄을 통해 스스로 존엄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자신만 바라보던 시선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돌리게 된다는 점이다. 즉 협동과 연대의 삶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돌봄은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은 2019년부터 원주시의 통합돌봄센터 운영도 위탁받아 본격적인 통합 돌봄 실험을 시작했다. 1층은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2층은 사무 공간으로 쓰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텃밭 가꾸기, 공동 식사, 물리치료, 주거 정리, 목욕 지원 등 실질적 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론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제공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 돌봄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김선기 국장(오른쪽)과 함께 한 공석기 필자

합원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실험을 전개하고 있다. 김선기 국장이 말하는 돌봄의 본질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돌봄은 관계성의 회복이다. 서비스나 행정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알아보고 기대는 과정이다. 누군가의 필요를 듣는 일에서 돌봄은 시작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을 통해 통합 돌봄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게 된다.

그동안 김선기 국장은 제도 중심의 돌봄이 가지는 한계를 자주 목격했다. “제도가 먼저 기준을 정하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갈거리 조합은 먼저 사람을 보고 관계를 만들게 된다”라고 강조한다. 특히 갈거리조합의 돌봄은 공급자와 수혜자의 이분법을 넘어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고 서로 돌보고 다시 돌봄 받는 ‘순환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갈거리협동조합은 복지 아닌 공동체를, 시혜가 아니라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요컨대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은 복지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복지의 틀에서 벗어나야 지속 가능한 돌봄, 즉 금융 돌봄을 중심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실천하는 조직이다.

김선기 국장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사람은 다시 혼자가 됩니다.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사이를 연결하고 싶습니다. 돌봄은 제도나 예산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돌보는 관계를 회복하고 그 속에서 서로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거죠”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갈거리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돌봄 생태계는 주민 참여를 핵심으로 한다. 조합원이 단순한 금융 수혜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여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장터 활동, 공동 출자, 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결합하여 끊임없이 관계성을 유지하고 협동하는 장으로 초대한다.

우리는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방문을 통해 돌봄은 과

연 얼마나 언제까지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돌봄은 소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할 정도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돌봄 제공자나 수혜자의 관계성 속에서 누구든지 ‘나답게 살 수 있는 틀’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돌봄은 관계적 돌봄으로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선기 국장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빈곤을 구제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가난해도 존엄하게, 나답게 살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 출발점이 금융 돌봄인 것이다.

이러한 돌봄 철학이야말로 빈곤한 시니어가 복지 수혜자로서의 낙인과 통제를 넘어설 수 있는 전제이다. 단순한 행정적 자격이 아닌, 사람의 삶과 관계를 중심에 둔 복지, 그래서 갈거리조합이 실험하는 ‘금융 돌봄’과 ‘통합 돌봄’은 단순한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의 장인 것이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돌봄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혜자이지만 동시에 제공자로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제공자와 수혜자의 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돌봄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상호돌봄에 참여함으로써 협동과 연대의 맛, 즉 사회적 가치를 먹게 된다면 비록 빈곤층에 속한 시니어일지라도 나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은 최근 정부가 위로부터 추진하는 통합 돌봄에 대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돌봄은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의 문제이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면 관계가 시작되고 그 안에서 의미와 존엄이 회복된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지역이고, 공동체고, 협동조합인 것이다. 김선기 국장은 열린 마음으로 금융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구든지

그의 손을 잡도록 먼저 내밀고 있다.

시니어 일자리와 지역공동체의 상생적 연결을 위한 질문들

지역을 지키는 사람은 이제 중장년 노인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이제 솔직히 질문을 던질 때이다. 지자체 공무원, 대학교수 및 교직원, 그리고 기업 간부 중에 얼마나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가?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지역에 거주하는 시니어를 위한 지역 맞춤형 좋은 일자리, 시니어 교육,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시니어 참여 프로젝트 등의 멋진 사업명은 추상적 구호에 불과하다.

시니어는 늘 시혜의 대상이고 그들의 경제적 필요를 약간 채워주는 낮은 수준의 일자리가 다수이다. 필자들은 동아시아 지역의 현지 조사 때마다 지역 공무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다수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사실 지역 공무원의 역량 그리고 지역 애착과 혁신은 바로 지역 주민과 얼마나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는가에서 비롯된다. 직접적 마주침과 대화 그리고 근무 외 일상 속에서 다양한 만남과 활동 속에서 신뢰를 유지하게 된다. 실제로 일본 군마현 다테바야시의 공무원 대다수가 그 지역 출신이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공무원, 시민사회 지역 활동가, 지역 거점 중견기업 모두가 수시로 만나 지역 현안과 장기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실질적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지방에 거주하는 시니어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발굴하고 먹고 살아갈까 궁금해서 다테바야시를 지난해 8월에 다시 찾았다. 연꽃 축제를 비롯해 꽃 정원이 유명한 다테바야시의 공원 관리는 중요한 정책 과제다. 한국에서 도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시니어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환경 청소



다테바야시 공원 모습

활동을 통해 수당을 받는 이른바 실버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어떻게?

다테바야시 공원 관리 담당 주무관은 지역 정주의식이 행정의 품질을 높인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다테바야시의 공원 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 도시는 4개 구역으로 공원을 나누고 민간업체에 5년 단위로 위탁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Adopt 제도' 즉, 특정 공원을 시민 혹은 지역 단체가 자발적으로 맡아 관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는 것이 특이었다. "작은 공원을 지키고 싶다는 동네 주민들이 시에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쓰레기봉투, 장갑 같은 도구를 지원하고요. 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들 기꺼이 참여하죠."

이처럼 무보수 자원봉사에도 불구하고 일본 지역 주민은 왜 적극 참여하는가? 다테바야시는 '무보수 자원봉

사'가 중심인데 그것은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 공원을, 다시 나이 들어 돌보는 것이라고 답한다. 사회적 가치를 발굴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세대가 이런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 연령대가 높고, 주로 은퇴한 노인, 즉 시니어가 중심인 것이다. 실제로 다테바야시에서도 한강 셋강시민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공원에서 미술 전시, 야외 결혼식, 대형 풍선 이벤트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관 주도이다. 젊은 세대와 시니어가 결합된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실험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셋강시민위원회의 활동은 훨씬 앞서 있고 모범적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은 시니어 일자리, 자원봉사, 협동조합 활동, 그리고 셋강시민위원회 활동으로까지 사회적 가치를 주목하고 이를 맞

보고 체득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다테바야시 공원 관리와 셋강 생태계 보전 활동이 보여준 것처럼 관 주도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민간 중심, 즉 시민주도의 활동으로 확장될 때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니어 풀뿌리 세계시민이 어느 순간 형성되고 그들이 지역 혁신과 공동체 그리고 관계적 돌봄을 견인할 것이다. 

사진=공석기 제공



공무원인 유조 아라이 씨(오른쪽)와 함께 한 공석기 필자